

濟州方言의 數量名詞와 數單位 依存名詞 語彙 研究*

김성룡**

차 례

I. 서론		
II. 제주방언의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		
1. 면적	2. 무게	3. 분량
4. 수효	5. 시간	6. 기타
III. 결론		

I. 서론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는 언어생활이 단순하였던 고대사회로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 이미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문화의 발달과 더불어 인류의 생활이 복잡해지면서 점점 수량을 정확하게 헤아릴 필요가 생기게 되었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가 생기게 되었다. 그 후 현대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그 수효뿐만 아니라 사용 범위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인류 사회가 지속되는 한

* 이 논문은 필자의 석사논문 「濟州方言의 數量詞 語彙 研究」 내용 중의 일부를 심화·보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계속될 것이다.

사물의 수량을 헤아리는 어휘들은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간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한 국가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생성, 성장, 소멸의 과정을 밟는다.

제주도에서는 자립명사들을 수사와 함께 씌으로써 수량을 나타내기도 하고, 도량 단위어를 어떤 명사의 수량을 표시하는 말로 삼아 그 명사의 뒤에 놓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어휘들의 사용과 용법은 제주도의 역사적인 배경과 사회적·지역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현재 도량형 어휘의 주가 되는 척관법 계측 어휘와 부수적인 수량 어휘로 일상생활에서 수량을 헤아리는 데 사용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처지를 보면 서구 생활양식의 전래로 기술과 물품의 수입을 타고 '야아드법'이나 '파운드법'에 따른 수량 어휘들이 수입되었다. 특히 요즈음은 서구어 교육의 강조와 첨단 과학이나 기술 진흥 정책에 따라서 더욱 복잡하고 세분화된 전문적인 수량 어휘들을 습득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행정 당국에서는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미터법의 정착을 위해서 계량법까지 제정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일상생활에서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가 차지하는 위치는 수량의 정확성뿐 아니라, 언어생활에서의 명확성과 감각의 형상화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다.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의 명확한 이해와 사용은 문자 생활뿐 아니라, 언어생활을 더욱 풍부하고 윤택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껏 우리의 생활 습성에 익어온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들이 점점 사라지고 서구 외래어로 사물의 수량을 나타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날로 빈번해지는 국제적 교류 속에서 경쟁하며 성장·발전해 가는 현실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며, 일상생활에서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인식하고 변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 나라의 계측 제도나 그에 따른 수량 어휘의 사용은 나름대

로의 오래된 전통과 관습이 있는 만큼, 하루아침에 바꾸거나 법적인 규제를 내세워 쉽사리 뿌리내리게 할 수는 없다. 어느 한 수량 단위로의 통일된 사용을 바란다면 좀더 오랜 시일을 두고 꾸준한 계몽과 교육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관점에서 제주방언의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는 아직까지 실제 생활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언중들 사이에 사용하고 있으며, 더러는 우리의 고문헌을 이해하기 위해서 불가불 알아야 하지만, 앞으로 자칫 사멸어가 되어버릴 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연구는 잊혀져가는 제주방언의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들을 문헌 조사¹⁾와 현지 조사²⁾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어휘론면에서 접근을 하고, 제주방언 중 특이한 형태의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는 형태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1) 김민수 외(1992), 「국어 대사전」, 금성출판사.
 김영돈 외(2003), 「제주설화 집성(1)」,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김영돈(1965), 「제주도 민요 연구 上」, 일조각.
 박성훈(1998), 「단위어 사전」, 민중서림.
 박용후(1960), 「제주방언 연구」, 동원사.
 윤치부(1999), 「제주전래동요사전」, 민속원.
 제주도(1995), 「제주어 사전」, 제주대 박물관(제주방언 연구회)
 진성기(1958), 「제주도 민요」, <제1집>, 화방프린트사.
 _____(1958), 「제주도 민요」, <제2집>, 중앙미술사 프린트부.
 _____(1958), 「제주도 민요」, <제3집>, 성문프린트사.
 _____(1968), 「남국의 민요」, 제주민속문화연구소.
 현용준·김영돈(1980), 「한국구비문학대계」, 9-1, <북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_____(1981), 「한국구비문학대계」, 9-2, <제주시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_____(1983), 「한국구비문학대계」, 9-3, <서귀포시·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평효(1985), 「제주도 방언 연구」, <자료편>, 대학사.
 _____(1985), 「제주도 방언 연구」, <논고편>, 二友.

2) 체보자 : 김규호, 남·75, 서귀포시 색달동.
 양승규, 남·74, 북제주군 애월읍 상가리.
 김길호, 남·82, 남제주군 표선면 세화3리.
 조재익, 남·65,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2리.
 이순일, 여·62, 남제주군 대정읍 신도2리.

II. 제주방언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는 명사를 분류하는 기능을 한다. 즉, 제주 방언의 ‘흔 근, 두 되, …’ 따위에서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는 선행하는 명사를 분류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과 ‘되’는 현대 일상생활에서는 한정된 쓰임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고기, 딸기, 고추, 고사리, … 흔 근
- * 쌀, * 냉장고, * 땡, … 흔 근
- ② 쌀, 소금, 콩, (곡식류), … 흔 되
- * 파, * 채상, * 무, … 흔 되

①과 ②에서 보듯이 수단위 의존명사 ‘근’, ‘되’는 ‘고기 흔 근, 딸기 흔 근…’으로는 쓰이지만 ‘쌀 흔 근, 냉장고 흔 근…’으로는 쓰이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쌀 흔 되, 소금 흔 되…’는 쓰이지만 ‘파 흔 되, 무 흔 되…’는 쓰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는 분명히 결합하는 명사를 가리어 잡는다.

그리고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는 반드시 수관형사 뒤에 따르며, 이들이 수량사구를 형성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췌이 흔 머리/마리 (쥐 한 마리)
- 마농 세 집(마늘 세 집)
- 사름 흔 명(사람 한 명)

또한 ‘수관형사+수량명사·수단위 의존명사’가 수량사구를 형성하여 명사를 수식하는데,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 ③ 명사+수관형사+수량명사·수단위 의존명사
- 쌀 흔 툄, 수박 흔 툄, …

④ 수관형사+수량명사·수단위 의존명사+의+명사³⁾

◦ 혼 마리의 새, 혼 잔의 술,...

제주방언에 나타난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들을 의미 자질에 따라 '면적, 무게, 분량, 수효, 시간, 기타'로 분류하여 살펴보겠다.

1. 면적

'면적'에 대한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들은 대부분 논이나 밭의 면적을 헤아리는 데 쓰인다. 또한 서양의 단위처럼 절대적인 측정보다는 쌀 섬이나 되 등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측정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는 서로 간에 일정한 수리로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 있다. 그 계층 구조가 완전한가 아닌가에 따라 완전 계층 구조 단위어와 불완전 계층 구조 단위어로 나뉜다.

표준어에서는 완전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10진법 수리 구조가 대표적이다.

<표 1> 표준어에서 완전 계층 구조 단위어

1	2	3	4
1) 작 →	홉 →	되 →	말
2) 되지기 →	마지기 →	섬지기	
3) 푼 →	돈 →	냥	
4) 단 →	정		

위 <표 1>의 1), 2), 3), 4)는 오른쪽 화살표 방향으로 1단계 나아갈 때마다 10진법으로 확대되는 완전 계층 구조의 단위어들이다. 엄격한 10진법의 계층구조로 체계화⁴⁾되어 있고, 1)의 경우는 '말(斗)'의 상위계층으로

3) 이 문형은 구어체에서는 그다지 자연스럽게 않은 표현이다. 채완(1983: 32-33)에서는 '제목'에 많이 쓰이는 전형적인 문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가마니’나 ‘섬(石)’을 둘 수도 있을 만큼 그 계층구조가 복잡하다. 4)의 경우는 계층 구조가 단순하다. 계층 구조가 단순한가 복잡한가 하는 것은 그 단위어의 사용 빈도와 관계가 깊다. 경제 규모의 확대로 더 큰 계량 단위를 필요로 했을 때는 더 높은 계층의 단위어를 개발하게 될 것이고 사용 빈도가 줄어들면 새로운 단어의 개발은 불필요하고 기왕의 단위어도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위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준어에서는 완전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10진법 수리 구조로 되어 있다.

제주방언에서는 1)과 2)인 경우 불완전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 제주 방언에서는 10작(勺)이 1홉이 되며, 4홉이 소두(小斗) 1되, 10홉이 대승(大升) 1되이며, 대승(大升) 4되와 소승(小升) 10되가 소두(小斗) 1말이다. 오히려 ‘홉(合)’에서 ‘말(斗)’까지는 대승(大升)이나, 소승(小升)이나에 따라 4진법 수리 구조와 10진법 수리 구조를 이루고 있다.

2)인 경우는 밭의 질(質)에 따라 씨를 부어낼 수 있는 양(量)이 다르기 때문에 ‘흔 되지기’, ‘흔 말지기’, ‘흔 섬지기’에 따른 밭이나 논 면적, 즉 ‘평/평(坪)’ 수가 제주도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이 중에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단위어는 ‘흔 말지기’로, 면적은 100평, 150평, 300평까지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면적」 범주에 속하는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에는 ‘돼지기, 말지기/마지기, 섬지기, 평/평(坪)’ 등이 있다.

1) 돼지기

‘돼지기’는 표준어로 ‘되지기’이며, 논밭의 넓이를 헤아리는 데 쓰는 말로 벌써 1되로 모를 부어낼 수 있는 논 면적 또는 씨 1되를 뿌릴 수 있는 밭의 넓이를 이른다.

‘돼(升)’를 표준어로 ‘되(升)’라 하며, 제주도에서는 4홉(合)이 소승(小升) ‘1되(升)’, 10홉이 대승(大升) ‘1되(升)’이다.

4) 서양의 미터법은 모두가 10진법에 기초하고 있다.

2) 말지기/마지기

‘말지기/마지기’는 표준어로 ‘마지기’이며, 벼씨 1말(斗)로 모를 부어 낼 수 있는 논(田)의 넓이 또는 씨 1말을 뿌릴 수 있는 밭의 넓이를 하나 치로 헤아리는 데 쓰는 말이다. 육지에서는 ‘열 되지기’가 ‘한 마지기’이며, 각 지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개 논은 150평 또는 300평, 밭은 100평 정도이다.

특히 제주도는 지형상 대부분 밭으로 주로 보리농사를 지었는데, 제주도에서 ‘한 말지기’하면 보리농사를 지을 때 보리 씨 ‘한 말’을 부어낼 수 있는 밭의 넓이를 헤아리는 데 쓰였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소승(小升) 10되 또는 대승(大升) 4되가 소두(小斗) 1말에 해당된다.

◦그놈이 쭈무 말지기를 해지기 전에 다 갈아 붙었어.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밭의 질(質)에 따라 씨를 부어낼 수 있는 양(量)이 다르기 때문에 ‘한 말지기’는 지역에 따라 <표 2>와 같이 그 면적(坪)이 다르다.

<표 2> ‘한 말지기’ 밭 면적(坪)

수관형사+수량명사	의미	지역	면적(坪)
한 말지기	보리 씨 ‘1말’을 부어낼 수 있는 밭의 넓이	한림, 광지	100평
		성산, 표선, 남원	150평
		애월	300평

3) 섬지기

‘섬지기’는 논밭의 넓이를 헤아리는 데 쓰는 말로 한 섬지기는 벼씨 1섬으로 모를 부어낼 수 있는 논(田)의 넓이 또는 씨 1섬을 뿌릴 수 있는 밭의 넓이를 이른다. 섬지기는 마지기(斗落只)의 10배에 해당된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소두(小斗) 15말 또는 대두(大斗) 6말이 1섬에 해당된다.

4) 췁/평(坪)

‘췁/평(坪)’은 표준어로 ‘평(坪)’이며, 논, 밭, 임야, 대지의 면적을 헤아리는 데 쓰는 말로 1평은 3.3㎡에 해당된다. 촌평(寸坪)이라고도 한다.

면적을 헤아리는 데 「미터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도에서는 아직도 밭의 면적을 헤아릴 때 ‘m’ 대신 ‘췁/평(坪)’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 ① 그 밭이 혼 이천 췁 췁니다.
- ② 논밭이 멧 천 췁 잇는 디 잇어요.

위에서 살펴본 ‘면적’ 범주에 속하는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의 의미와 쓰임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면적’ 범주에 속하는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

의미 자질	수량명사·수단위 의존명사		의미·쓰임
	제주방언	표준어	
면적	뽕지기	되지기	뽕씨, 보리씨 따위 ‘1되(升)’를 부어낼 수 있는 논, 밭의 넓이
	말지기/마지기	마지기(斗落)	뽕씨, 보리씨 따위 ‘1말(斗)’을 부어낼 수 있는 논, 밭의 넓이
	섬지기	섬지기	뽕씨, 보리씨 따위 ‘1섬(石)’을 부어낼 수 있는 논, 밭의 넓이
	췁/평	평(坪)	논, 밭, 임야, 대지의 면적을 헤아리는 데 쓰는 말

2. 무게

「무게」 범주에 속하는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에는 ‘냥, 근(斤), 관(貫), 칭/칭(稱)’ 등이 있다.

1) 냥(兩)

'냥'은 수관형사 밑에 쓰이어 돈 또는 중량을 나타내는 단위이며, 1냥은 1돈[錢]의 10배에 해당된다.

- 천금상이라면 돈 천 냥이지. 그 때 돈 천 냥이 돼며는 요새 멧 억은 넘지.
- 그놈의 점값이 돈이 열 냥이라. 아이고 서른 냥 ㄴ전 가니, 열 냥을 주어 불었어.
- 그 때 돈 열 냥이민 지금 혼 백만원만이 갈 거라.

수단위 의존명사 '냥'은 주로 금이나 은의 중량을 잴 때 쓰이는데, 이는 금이나 은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재산 목록의 하나였으므로 다른 보석(호박, 자수정... 등)과는 달리 이들에 대한 특정한 수단위 의존명사가 생겨나게 되었다.

2) 근(斤)

'근(斤)'은 통일신라시대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사용되는 단위. 중국 한(漢)나라 때의 1근은 222.72g, 당(唐)나라 때에는 한나라 때의 3배(倍)였는데, 이것이 신라에 전해졌다. 1근은 현재 161돈중으로, 1902년 도량형(度量衡)의 개혁에 의하여 16냥(兩)을 1근으로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관(貫)의 보조단위(補助單位)로써 1근은 0.16관으로 600g에 해당된다. 근을 달아 파는 고기, 딸기, 포도, 새우 따위에 쓰인다.

- 그까짓거게 돛깨기 멧 근 먹는거 문제라?
- 공중에 이렇게 들으민 백 근 화살을 갖고 잇더니만,

3) 관(貫)

'관(貫)'은 척관법(尺貫法)에 의한 단위의 한 가지이며, 1관은 3.75kg에 해당된다. 1964년 1월 이후부터는 계량법 개정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관(貫)으로 달아 파는 굴, 고구마, 감자, 양파, 당근 따위에 쓰이는데, 지금은 대부분 상자를 이용하고 있다.

수단위 의존명사 ‘근, 관’은 아래 ①, ②와 같이, 유동 물질을 지시하는 명사와는 결합하지 않으며, ‘근, 관’으로 달아서 파는 물건들에만 한정적으로 결합한다.

- ① 우유 혼 근
- ② 기름 혼 관
- 쌀 혼 관

4) 측/칭(稱)

‘측/칭(稱)’은 표준어로 ‘칭(稱)’이라고 하며, 질량을 나타내는 尺貫法의 한 단위이다.

제주도에서 ‘1측’은 아래 ②, ③에 해당되는 100근이며, 주로 돼지고기나 소고기 무게를 달아 팔 때 쓰인다.

- ① 1칭은 15 근에 해당된다.
十五斤爲稱 <事類博解, 上, 人事, 財寶>
- ② 1측은 100 근에 해당된다.
鑪鐵一稱(百斤), 價錢一百兩.
豆錫一稱(百斤), 價良二十二兩.
常鐵一稱(百斤), 價良三十兩.
熟銅一稱(百斤), 價良二十六兩七錢七分.
尺銅一稱(百斤), 價良十八兩半. <度支準折, 銅鐵>
- ③ 말하자면 무꼭이라 하면, 다 혼 측 이상 아답니까. 백 근 이상이니 그것 들을 혼 착 손으로 심어 가지고 앓아 던지고 던지고 하니까,

위에서 살펴본 ‘무게’ 범주에 속하는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의 의미와 쓰임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무게' 범주에 속하는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

의미 자질	수량명사 · 수단위 의존명사		의미 · 쓰임
	제주방언	표준어	
무게	냥	냥	돈 또는 금이나 은의 중량을 나타내는 단위. 1냥은 1돈(錢)의10배
	근	근	근을 달아 파는 고기, 딸기, 포도, 새우 따위에 쓰임. 1근은 600g
	관	관	척관법(尺貫法)에 의한 단위. 1관은 3.75kg
	칭/칭(稱)	칭(稱)	질량을 나타내는 단위이며, 돼지고기나 소고기 무게를 달아 팔 때 쓰임. 1칭은 100근

3. 분량

「분량」 범주에 속하는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에는 '홉(合), 되약새기, 쉼(升), 말(斗), 섬(石), 가맹이, 충이/추니/춘(鑊), 말치, 적' 등이 있다.

1) 홉(合)

'홉(合)' 곡식의 양을 헤아리는 데 쓰는 말이다. 1홉은 작(勺)의 10배이며, 되(升)의 10분의1 또는 말(斗)의 100분의 1에 해당된다. 홉(合)으로 되어 파는 쌀, 콩, 밤, 소금, 보리 따위에 쓰인다. 제주도에서 1홉은 10작(勺)에 해당된다.

2) 되약새기⁵⁾

'되약새기' 4홉(合) 들이 '되(升)'로써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명칭이 있다. 제주도 북부에서는 '되약'이라 하고, 남부에서는 '되약새기/되약새기/되약새기'라고 한다.

5) 石宙明(1968), "제주도자료집", 「제주도총서」, 보진제.

특히 旌義方面(성산, 표선, 남원)에서는 '짐작', 大靜方面(중문, 안덕, 대정)에서는 '짐작기'라고도 한다.

그리고 '되악새기'는 馬來語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표 5> '되악새기' 어원

제주방언	馬來語	표준어
되악새기/되악새기/되악새기	새기(segi ; 角)	되(升)

3) 되(升)

'되(升)'는 '승(升)'의 뜻으로, 곡식, 액체, 가루 따위의 분량을 헤아리는 데 쓰는 말로 표준어로는 되(升)이다. 육지에서 1되(升)는 1말(斗)의 10분의 1 또는 1홉(合)의 10배에 해당된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4홉이 소승(小升) '1되(升)'이며, 10홉이 대승(大升) '1 되(升)'이다. '되(升)'로 되어 파는 쌀, 콩, 밀가루, 소금, 보리 등에 주로 쓰인다.

- 세금은 빗츄록 싯 호곡 재 혼 뉘. 모든 백성 이것만 해 오라.
- 그자 재 혼 뉘 호곡 빗츄록 식 개

4) 말(斗)

'말(斗)'은 곡식이나 물 같은 것의 양을 헤아리는 데 쓰는 말로 1말(斗)은 섬(石)의 10분의 1 또는 되(升)의 10배에 해당된다. 말(斗)에는 구두(舊

6) 石宙明(1968), 앞의 책.

여기서 말하는 馬來語란 것은 南洋全體의 諸民族이 널리 使用하는 共通語요, 東은 필리핀(Philippine) 群島의 南部 민다나오(Mindinao)島의 일부에서부터 西는 아프리카(Africa) 東岸의 마다카스카르(Madagascar)島까지, 南은 뉴우기니아(New Guinea)及 뉴우칼레도니아(New Caledonia) 群島의 일부에서부터 北은 海南島의 일부까지에 걸치는 廣地域에서 사용되는 公同어라 할 수 있다.

斗), 신두(新斗)가 있고, 큰 말과 작은 말이 있는데, 큰 말은 작은 말의 2배에 해당되며, 큰 말을 대두(大斗), 작은 말을 소두(小斗)라 한다. 말(斗)로 되어 파는 쌀, 콩, 밤, 소금, 보리 따위에 쓰인다.

$$\begin{aligned} \textcircled{1} \text{ 구대두(舊大斗)} &= 10\text{구대승(舊大升)} \\ &= 1/5\text{가마니} \\ &= 1/10\text{섬(石)} \\ &\approx 1.8\ell \end{aligned}$$

$$\begin{aligned} \textcircled{2} \text{ 구소두(舊小斗)} &= 10\text{구소승(舊小升)} \\ &= 1/10\text{가마니} \\ &= 1/10\text{섬(石)} \\ &\approx 9\ell \end{aligned}$$

$$\begin{aligned} \textcircled{3} \text{ 신두(新斗)} &= 10\text{승(升)} \\ &= 1/10\text{가마니} \\ &= 1/20\text{섬} \\ &= 10\ell \end{aligned}$$

특히 제주도에서 소승(小升) 10되, 대승(大升) 4되가 소두(小斗) 1말에 해당된다.

- 말(斗) 2짜 니 개 카뜻헨
- 게난 쌀 혼 말씨 전부 가져와.

5) 섬/석(石)

‘섬/석(石)’은 주로 곡식이나 액체의 양을 헤아리는 데 쓰는 말로 1말(斗)의 10배에 해당된다. 섬의 10분의 1을 대두(大斗) 1말이고, 가마니의 10분의 1은 소두(小斗) 1말이다. 따라서 육지에서 1섬은 대두(大斗)로 10말이고, 소두(小斗)로 20말이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소두(小斗) 15말, 대두(大斗) 6말을 1섬으로 통용되고 있다.

- ① 곡식이라도 밋 섞 태와 달라
 쌀 흔두어 섞 받안 좃어.
- ② 이^진 곡^석이 수^{백만} 수^만 섞을 들이고

6) 가멩이

‘가멩이’는 표준어로 ‘가마니/가마’라고 하며, 가마니에 곡식, 소금, 비료 따위를 담아 그 양을 헤아리는 데 쓰는 말이다. 예전에는 소두(小斗) 10말(斗) 또는 대두(大斗) 5말을 1가마니로 하였으나, 현재는 리터되(liter 升)로 10되를 1말, 10말을 1가마니로 치고 있다.

- ① 구제(舊制) 1 가마니 = 소두(小斗) 10 말
 = 대두(大斗) 5 말
 = 소승(小升) 100 되
 = 대승(大升) 50 되
 ≒ 90ℓ
- ② 신제(新製) 1 가마니 = 리터 말 10 말
 = 리터 되 100 되
 = 100ℓ

제주도에서는 대두(大斗) 4말을 ‘흔 가멩이’로 하거나, 소두(小斗) 10말을 ‘흔 가멩이’로 하였다. 예전에 고구마 흔 가멩이는 10관(가멩이 포함 40kg)이다. 현재는 모든 곡식류 40kg을 ‘흔 가멩이’로 치고 있다.

- ③ 쌀 흔 가멩이 ㄱ정오라.
- ④ 가멩이 흐나 ㄱ정읍서

③인 경우 ‘흔 가멩이’는 ‘수관형사+수량명사’ 형태로, 여기서 ‘가멩이’는 수량명사로 볼 수 있으며, ④인 경우 ‘가멩이 흐나’는 ‘명사+수사’ 형태로, 여기서 ‘가멩이’는 명사로 볼 수 있다.

7) 충이

‘충이’는 술 따위를 담는 준(罇)으로서 둥그스름한데 위아래는 빨되 밑은 얇혀지게 되고 위의 아가리는 아주 좁은 용기이다.

‘준(罇)’을 제주도에서는 ‘충이/추니/춘’이라고 하며, ‘1충이’는 ‘대승(大升) 10되’이다. 지역적 차이는 <표 6>과 같다.

<표 6> 제주방언 ‘충이’ 어휘

수량명사	지역	의미	분량
충이	중문·대정	술 따위를 담는 그릇	‘1충이’는 ‘대승(大升) 10되’
추니	세화·조천·애월		
춘	전역		

8) 말치

‘말치’는 술의 종류로서 ‘큰 술’을 뜻하며, ‘말치’의 종류는 술에 들어가는 양(量)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 ① 웨말치/웨말찌기 : 한 말(斗)들이 술
 - 고소리하고 딱시런 웨말치 아니민 맞지 아니혀여.
- ② 두말치/두말찌기/두말찌기/두말찌기 : 두 말(斗)들이 술
 - 두말찌기민 이만저만 큰 솟이 아니지게.
- ③ 다도테기/닷뒤테기 : 닷 되(升) 드는 크기의 술
 - 밥을 먹으며는 보통 다도테기 먹엇주기

9) 적

‘적’은 표준어로 ‘술’이라고 하며, 숟가락으로 헤아릴 만한 적은 분량이며, ‘흔 적’은 ‘한 술’에 해당된다.

- 영 어디 강 흔 적 빌어먹다가,
- 누게 밥 흔 적, 물 흔 적 먹으랜 아니혀니까니 나가 살 수가 엇이니,

위에서 살펴본 '분량' 범주에 속하는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의 의미와 쓰임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분량' 범주에 속하는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

의미 자질	수량명사 · 수단위 의존명사		의미 · 쓰임
	제주방언	표준어	
분량	홉(合)	홉(合)	곡식의 양을 헤아리는 데 쓰는 말
	되약새기/되약새기 /되약새기/되약/ 짐작/짐자기	되(升)	4홉(合)들이 되(升)
	뒤(升)	되(升)	'승(升)'의 뜻으로, 곡식, 액체, 가루 따위의 분량을 헤아리는 데 쓰는 말
	말(斗)	말(斗)	곡식이나 물 같은 것의 양을 헤아리는 데 쓰는 말. 특히 제주도에서는 '소두(小斗) 4되'를 '1말'이라고 함.
	섬/석(石)	섬/석(石)	곡식이나 액체의 양을 헤아리는 데 쓰는 말로 1말(斗)의 10배. 제주도에서는 소두(小斗) 15말, 대두(大斗) 6말을 1섬으로 통용.
	가맹이	가마니/ 가마	가마니에 곡식, 소금 따위를 담아 그 양을 헤아리는 데 쓰는 말.
	충이/추니/춘	춘(罇)	술 따위를 담은 춘(罇)으로서 둥그스름한 데 위아래는 뾰뚱 밑은 얇혀지게 되고 위의 아가리는 아주 좁음.
	말치	큰 술	술의 종류로서 '큰 술'을 뜻한다.
	적	술	순가락으로 헤아릴 만한 적은 분량

4. 수효

「수효」 범주에 속하는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에는 '뭇, 바리, 베/배, 거리/커리, 파니' 등이 있다.

1) 뭇

'뭇'은 표준어로 '단'이며, 생선, 고기 따위 열 마리를 한 단위로 세는 데

쓰는 말 또는 벼, 보리, 출(짚), 콩, 조 따위의 단의 수를 세는 데 쓰는 말이다. 제주도에서 곡식인 경우 1뭇은 10줌 정도에 해당된다.

◦ 누르며 놔서 지게로 기냥 보릿뭇으로 하여 가지고 이 놈을 누르며 놓고는,

2) 바리

‘바리’는 묶음이나 단을 나타내는 수량명사로서 소나 말의 등에 실은 짐의 양 또는 그 수를 세는 데 쓰는 말이다. 한 바리는 보통 20단에서 30단 정도를 가리키며, 때로 소 한 마리가 등에 실어 나를 만한 무게의 분량으로 볼 수 있다.

◦ 피 말지기 불런 흐는 게 금년도 흐 칠십 바리 흐니까,

제주도에서 ‘바리’의 수효는 아래 <표 8>과 같이 출(짚), 보리, 조, 모밀/모밀(메밀) 따위에 따라 또는 지역에 따라 다른데, 이것은 ‘뭇’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8> ‘바리’의 쓰임과 수효

수량 명사	의미	쓰임	수효	지역
바리	소나 말의 등에 실은 짐의 수(數)를 세는 데 쓰는 말.	출(짚)	40뭇	중문·대정
			30뭇	남원·조천 하귀·상가
바리	소나 말의 등에 실은 짐의 수(數)를 세는 데 쓰는 말.	보리	20뭇	중문·대정
			30뭇	남원·조천 하귀·상가
		조	6뭇-잘된 조	중문·대정
			12뭇-안된 조	
		6뭇	하귀·상가	
모밀/모밀(메밀)	6뭇	중문·대정·하귀 상가·표선·남원		

3) 배/배

‘배/배’는 표준어로 ‘컬레’이며, 신, 버선, 양말 따위의 ‘한 쌍’을 하나 치로 세는 데 쓰는 말로 ‘량(兩, 量, 綱), 족(足)’이라고도 한다.

- 너희덜 일곱 성제라 신을 혼 배씩만 삼아주민 나가 강 아바질(아버지를) 좇아 오마
- 너희덜 신 일곱 벨 삼아주엇주마는 나는 너의 아방을 좇다가 버쳐서 그냥 오고라.
- 신 일곱 배 돈 헐도록 돌아댁겨도 그냥 오란

그러나 1950년대에 와서 양말, 고무신, 운동화 따위에 수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족(足)’이 쓰였음을 아래 <표 9>를 보면 알 수 있다. 이것은 한자어의 영향으로 우리의 순수하고 맛깔스러운 ‘배/배’ 어휘가 소멸된 예로 볼 수 있다.

<표 9> 제주방언 ‘족(足)’에 관한 어휘⁸⁾

物品	數量	單價	物品	數量	單價
양 말	足	200圓	고무신 白(男)	"	450圓
고무신 黑(男)	"	350圓	고무신 白(女)	"	350圓
고무신 黑(女)	"	250圓	운동화	"	450圓

사전적 의미로 배(倍)는 ‘갑절’, ‘곱절’이란 뜻⁷⁾이 있는데, 제주방언의 ‘배/배’는 ‘하나’에 ‘곱절/갑절’ 뜻이 포함된 ‘쌍’으로 볼 수 있다.

- 혼 배/배 : 혼나(一)×곱절/갑절//쌍(二) = 혼 곱절/갑절// 혼 쌍
- 두 배/배 : 둘(二)×곱절/갑절//쌍(二) = 두 곱절/갑절//두 쌍

7) 김민수 외(1992),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1188쪽.

4) 거리/커리

‘거리/커리’는 집이나 건물의 수를 세는 데 쓰는 말로 표준어는 ‘채’이며, 가(架·家), 구(區), 당(幢), 동(棟), 소(所), 실(室), 우(宇), 원(院), 장(旻), 좌(坐·座), 진(進)의 뜻으로도 쓰인다.

- | | |
|--------------|-------------|
| ① 안 거리 (안 채) | 밖 거리 (바깥 채) |
| 앞채 거리 (앞 채) | 뒤채 거리 (뒤 채) |
| 외 채 (외 채) | 한 채 (한 채) |
| 두 채 (두 채) | |

② 이젠 영 안팎 거리하고 저디하고 이디하고 하는 니 거리주기
 남존 지와집 열두거리릴 못 냉겨도 여존 지와집 열두거리릴 더 냉겨주

③ 화닥닥한 난 증이는 마당으로 저 안 커리하고 밖 커리 가는 도중에 도
 망쳐 가난 가명 밖 커리레 가 붙어. 밖 커리 간 와당탕와당탕

③인 경우, ‘커리’는 ‘ㅎ곡용’이 된 어휘로 볼 수 있다.

- 안ㅎ+거리 > 안 커리
- 밖ㅎ+거리 > 밖 커리

5) 파니

‘파니’는 밭, 논들을 셀 때 또는 고지⁸⁾를 셀 때 쓰는 말이다.

- 밭 멧 파니 줄 거고, 할망 정해 주겄소

위에서 살펴본 ‘수효’ 범주에 속하는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의 의미와 쓰임을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8) 여기서 ‘고지’는 ‘이랑’으로 한 두둑과 그에 따른 고랑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표 10> '수효' 범주에 속하는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

의미 자질	수량명사·수단위 의존명사		의미·쓰임
	제주방언	표준어	
수효	뭇	단	꿀, 벼, 보리, 조 따위의 '단'의 수를 세는 데 쓰는 말.
	바리	바리	소나 말의 등에 실은 짐의 양 또는 그 수를 세는 데 쓰는 말. 제주도에서는 지역, '뭇(단)'의 크기와 출(꿀) 또는 곡식의 종류에 따라 '흔 바리'의 '뭇(단)' 수가 '6뭇(단)~40뭇(단)'까지 다소 차이가 있다.
	베/배	컬레	신, 버선, 양말 따위의 '흔 쌍'을 하나 치로 세는 데 쓰는 말.
	거리/커리	채	집이나 건물의 수를 세는 데 쓰는 말.
	파니	개/이랑	논이나 밭의 수를 세거나, 고지(이랑)를 셀 때 쓰는 말.

5. 시간

시간 계열어를 이루고 있는 제주방언을 찾아보면 한자어보다 뜻 구분도 명쾌할 뿐만 아니라 더 아름다운 느낌과 부드러운 느낌을 주어 우리에게 더욱 우리말다운 맛깔스러움을 맛보게 하며 친근감을 주고 있다.

「시간」 범주에 속하는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에는 '해치, 마소(牛馬)의 나이, 둘/월(月), 날/일(日), 물이름(潮水名)' 등이 있다.

1) 해치

제주방언에서 십이간지(十二干支)에 따라 그 해에 태어난 사람에 관한 호칭(명칭)을 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十二干支에 따른 사람 명칭 어휘

간지 (干支)	제주방언	표준어	의미
子	쥐해치/쟁이해치/중이해치	쥐띠	쥐해(子年)에 난 사람
丑	쇠해치	소띠	소해(丑年)에 난 사람
寅	범해치	범띠	범해(寅年)에 난 사람
卯	토끼해치/토끼해치	토끼띠	토끼해(卯年)에 난 사람
辰	미리해치/용해치	용띠	용해(辰年)에 난 사람
巳	배염해치	뱀띠	뱀해(巳年)에 난 사람
午	말해치	말띠	말해(午年)에 난 사람
未	정남해치/양해치/염쇄해치	양띠	양해(未年)에 난 사람
申	납해치/원숭이해치/원생이해치	잔나비띠 원숭이띠	잔나비해 · 원숭이해(申年) 에 난 사람
酉	독해치	닭띠	닭해(酉年)에 난 사람
戌	개해치	개띠	개해(戌年)에 난 사람
亥	돼지해치/도새기해치	돼지띠	돼지(亥年)에 난 사람

위에서 제주방언의 十二支에 따른 사람 명칭을 보면, “쥐해치, 쇠해치, 범해치, 토끼해치, 미리해치, 배염해치, 말해치, 정남해치, 납해치, 독해치, 개해치, 돼지해치”로 말한다.[석주명(1947:168)]

‘해치’의 ‘해’는 ‘해(年)’의 뜻이요, ‘치’는 [하루치, 이틀치, 사흘치, 한달치, 두달치, 석달치]와 같은 접미사로 볼 수 있고, 아니면 ‘띠’에 해당하는 뜻이 아닌가 한다. “해=해(年), 치=띠”로 볼 수 있다.

‘미리해치’의 ‘미리’는 중세국어 ‘미리내’, ‘미루내(籠)’에서 온 것이다.

9) 제주방언 ‘해치’는 중세 몽골어 *hi č e-hiče, iče-iči*-(avoir honte)와 비교가 된다. 제주 가파도 말에 ‘비치럽다(恥)’는 중세어 ‘붓그리다’, 표준어 ‘부끄럽다’와 비교할 적에 ‘비치럽다’가 古形이 아닌가 한다 [이기문(1980:463~4)]

‘정남헤치’의 ‘정남’은 염소, 양(羊)에 해당하며 ‘염쉐헤치’, ‘염헤치’라고도 한다.

‘남헤치’의 ‘남’은 ‘잔나비(申)’ 또는 ‘남 신(申)’에서 온 것으로 본다.

2) 마소(牛馬) 나이

제주도에는 축산업이 성행하였기 때문에 마소(牛馬) 나이에 대한 명칭이 다른 지역보다 세분화 될 수밖에 없었다.

제주방언에서 마소(牛馬) 나이에 관한 명칭을 보면 <표 12>와 같다.

<표 12> 마소(牛馬)연령 (마취 나이)의 명칭 어휘¹²⁾

연령	표준어 마소(공통)	제주 소(牛)	제주 말(馬)
한 살	하릅	금승(쇠)	금승마
두 살	이릅	다간	이수매
세 살	사릅	사릅	삼수매
네 살	나릅	나릅	사수매
다섯 살	다습	다습	오수매
여섯 살	여습	여습	육수매
일곱 살	이릅	일곱	칠수매
여덟 살	여듭	여답	팔수매
아홉 살	아습	아홉	구수매
열 살	열릅	열	십수매

‘금승’은 한자어 ‘今生’에서 따온 말로 ‘방금 태어난’ 말(馬)과 소(牛)를 뜻한다.

‘소의 두 살’인 ‘다간’을 몽골어 *dayayan*과 일치하며, 다만 몽골어 *dayayan*은 ‘두 살 된 말’을 뜻하는 어휘인데 제주방언의 ‘다간’은 ‘소의 나이를 나타낸다.¹⁰⁾

3) 돌/월(月)

‘돌/월(月)’은 1년을 열둘로 나눈 것의 하나 또는 평균 30일을 하나 치로 세는 데 쓰는 말이다. 개월(個月)/삭(朔)/달/월(月)이라 한다.

제주도에서는 예전에 11월을 ‘동지돌’, 12월을 ‘섯돌/선돌’, 1월을 ‘정월’로 쓰였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동지돌, 섯돌/선돌’은 ‘돌’로 쓰이고, ‘정월’은 ‘월(月)’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당신이 거기 혼 돌이고 두 돌이고 살다가
경호영 혼 돌 두 돌 석 돌이민 택일(擇日)을 하고
- ② 칠팔월아 무술/동지 섯돌 대설
거 동지 섯돌에다가 무신 늬의 선재가 사용호여 잇읍니까?
- ③ 칠팔월아 무술/동지 선돌 대설
선돌 십이월 그믐에 가서 노로(노루)나 혼나 잡아다가 제천(祭天)하고
말해 불라고
- ④ 제천이라 혼 건 정월 초승에 제천지내는 거고

4) 날/일(日)

날짜나 날수(日數)를 세는데 있어서 제주방언이 표준어보다 어휘가 훨씬 많이 분화(分化)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점은 아마도 제주도는 일상 생활과 날짜/일수가 아주 밀접한 때문이 아닌가 한다.¹¹⁾

제주방언, 중세국어, 표준어에 나타난 날짜 이름에 관한 어휘는 <표13>과 같다.

10) 김성규(1984), “국어 수사체계의 일고찰”, 『관악어문연구』9,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1) 최규일(1998), “제주방언과 창원지역어 어휘 비교 연구”, 『방언학과 국어학, 청암 김영태 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태학사.

<표 13> 날짜 이름에 관한 어휘

한자어	제주방언	중세국어	표준어
一日	흐르/흐루/흐를	흐르/홀룰	하루
二日	이틀	이톨/이틀	이틀
三日	사흘/사을	사올/사홀	사흘
四日	나흘/나을	나올/나홀	나흘
五日	닷새	닷새, 닷쇄	닷새
六日	엿새	엿새, 엿쇄	엿새
七日	일췌	닐췌	이레
八日	으드레/여드레	여드레	여드레
九日	아흐레	아흐래	아흐레
十日	열흘	열흘	열흘

날짜 이름에 관한 어휘는 ‘一日(일일)’부터 ‘十日(십일)’까지 제주 방언에서 두 가지 유형의 어휘로 구분된다. ‘흐르/흐를, 이틀, 사흘/사을, 나흘/나을, 열흘’은 ‘올/을(日)’ 계열의 어휘를 이루고, ‘닷새, 엿새·일췌, 으드레, 아흐레’는 ‘이/웨/에(日)’ 계열의 어휘를 이룬다.¹²⁾

특히 제주방언에서 날짜 이름에 관한 어휘는 그 전형이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¹³⁾ 수관형사+수량명사 ‘올/을(日)’의 형태와 수관형사+

12) 김종택(1993), 「국어 어휘론」, 탑출판사, 236-240쪽.

崔昌烈(1987), 「우리말 語源研究」, 一志社, 78-87쪽.

13) ‘이’는 ‘올’의 변형이고 ‘올’은 곧 ‘닐(日)’임을 보여 주는 흔적이 분명히 있다. ‘흐든-닐(·日)’이 ‘흐+올>홀룰>흐르’로 바뀌어 오늘날의 ‘하루’로 정착한 데서 ‘닐>올(日)’의 변화 과정을 찾을 수 있다. 이 ‘올’이 ‘이’로 바뀐 흔적은 ‘닷사’와 ‘나달’에서 찾을 수 있다. ‘나달’은 ‘네달-올(四五日)’로 ‘닷올’은 ‘닷사’와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며 ‘올>이’로 대응되고 있음을 보이는 흔적이다. 그리고 ‘다섯’이라는 말은 문을 닫는다고 할 때의 ‘닫’과 어원상 유연성을 갖는다는 의견도 고려해 볼 만하다. 손을 헤아릴 때 열 손가락을 꼽아 헤아리는 것이 보통이고 이것은 한 손을 닫았다 열었다 하면서 ‘하나’에서 ‘열’까지 셀 수 있다. 이 때 손가락을 꼽아 ‘다섯’을 세면 손이 닫혀서 주먹이 쥐어지고 ‘열’을 세면 손이 활짝 열려서 퍼진다. 즉 손가락을 하나씩 꼬부려 손이 닫힐 만큼 세었으면 ‘다섯’이 되므로 ‘닷(五)’은 곧 ‘닫(開)’에서 온 말이고, 닫혔던 손을 손가락 하나씩 펴 가면서 다시 세어 보면 다

수량명사 ‘익/웨/에(日)’의 형태가 있다.

(1) ‘올/을(日)’ 계열의 어휘

① 흐르/흐루/흐를 : 흘(一) + 올/을(日)

- 못흐는디 흐르는 삭망 초흐르 보름 삭제(朔祭)를 지나는 날이라.
- 흐루는 거 어떤 노인이 느려와서 그놈의 쟁이를 잡는 연구를 시겨 주엇
댄말여
흐루 걸러 가지고 흐루 아프고 날을 걸러 가지고 아픈다는 거.
- 결혼은 거기 강 흐를 밤 자는 거여.
흐를은 뺑이 똑 들엇다,

② 이틀 : 인흐(二) + 올/을(日)

- 혼 이틀 시니 이젠 완전이 일어난다.

③ 사흘/사을 : 셋>사흐(三) + 올/을(日)

- 죽엇단 사흘만이 깨어난 산 사름이여.

④ 나흘/나을 : 네>나흐(四) + 올/을(日)

- 숫이 많으난 알로 숫불 때어서 열흘이고 나흘이고 푸끔시민

⑤ 열흘 : 열흐(十) + 올/을(日)

- 숫이 많으난 알로 숫불 때어서 열흘이고 나흘이고 푸끔시민

(2) ‘익/웨/에(日)’ 계열의 어휘

① 닷체 : 닷(五) + 익/웨(日)

- 이젠 닷체가 넘어가도 요 뺑인태가 무슨 기적을 안해여,

섯 손가락을 모두 펴서 손이 활짝 열리므로 이러한 수를 세는 손꼽는 관습으로 볼 때, ‘열(十)’은 곧 열(開)에서 온 말이라는 견해는 인정할 만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② 옛쇄 : 옛(六) + 익/웨(日)

◦ 옛쇄 되는 날은 난디엇이(난데없이), 지방 요 동헌에 큰 폭낭(괘나무 아래 책실(冊室)이) 잇는다,

③ 일뤼 : 닐/일(七) + 익/웨(日)

◦ 바람 불길 일뤼만 불어

④ 여드레/여드래 : 여덟(八) - 익/에(日)

⑤ 아흐레/아으레 : 아홉(九) - 익/에(日)

‘흐르/흐를’은 수관형사 ‘홀(-)’과 수량명사 ‘올/을(日)’, ‘옛쇄’는 수관형사 ‘옛(六)’과 수량명사 ‘익/웨(日)’ 이 있기 때문에 따로 수량명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이는 ‘흐르/흐를’, ‘옛쇄’ 속에 녹아 있는 ‘일(日)’은 단위가 아니라 할 지 몰라도 명사 ‘일(日)’이 단위로 널리 쓰이고 있으므로 ‘일(日)’을 단위로 보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다.¹⁴⁾

15세기에서는 날짜 이름에 관한 계열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一日(홀르, 홀롤), 二日(이틀, 이틀), 三日(사올, 사홀), 四日(나올, 나홀), 五日(닷새, 닷쇄), 六日(옛새, 옛쇄), 七日(닐웨), 八日(여드래), 九日(아흐래), 十日(열홀)

또한 제주방언과 경남방언을 통해 날짜/일수(日數) 계산법에 관한 명칭을 살펴보기로 하자.

14) 이승명(1996), “한국어 수량단위 표시어군에 대한 연구”, 『睡蓮語文論集』, 第24輯, 161쪽.

역시 '來日'에 대한 제주방언형에서 표기상의 차이로 볼 수 있다.

과거 쪽의 4일째에 속하는 '그직아 날'은 '그직아시날'로 적기도 한다. 여기서 '아시'는 '아시'系로서 '初, 前'의 뜻이다. [이승녕(1956)]

- 호박 사례 와수다/널 므리 동동/식계 돌아와수다
- 호박 하나 폼서/널 므리 돌아와수다/사흘 안네 들어수다
- 호박 사례 와수다/널 모리 동동 흥영 읍서/널 모리 동동 네 모리 동동
- 우리가 아모날 아모, 널 모리 우리가 합홉시다.
- 얼즈날(어제 저녁) 떡바구리 물어간 늬으 개라
- 뒷날(뒷날) 결혼홀라고 막 옷덜영 막 주문호고 흥였는다.
- 켜디 그 뒷날로부터 날이 ㄱ무는(가무는) 거라.
- 오늘 우리 삼성제가 만나고 너 벌을 해벌(解罰)해서 우리 ㄱ찌 앓양 놀곡.
- 아시날 밤에(전날 밤에) 결국은 그 제스가 넘었는데.

<표 15>는 창원 지역어에서 '오늘'의 전후 명칭을 밝힌 것이다.

<표 14>, <표 15>를 통해 날짜/일수(日數) 계산법에서는 제주방언이 경남방언보다 어휘가 훨씬 많이 분화(分化)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점에 관해 아마도 제주도는 일상생활과 날짜/일수(日數)가 아주 밀접한 때문이 아닌가 한다.¹⁶⁾ 제주도에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수(日數)에 관한 어휘가 풍부하게 많이 존재함을 대할 수 있다.

5) 물이름(潮水名)

물 이름(潮水名)¹⁷⁾은 제주도 한라산을 중심으로 북부는 육지와 일치하고 남부는 1일을 더 빠르게 계산한다.

16) 최규일(1988), 앞의 논문

17) 제주도(1996), 「제주의 해녀」, 제주도수산과, 75-76쪽.
石宙明, 앞의 책.

<표 16> 물 이름(潮水名) 어휘

음력 일자	물 이름 (북부)	물 이름 (남부)	음력 일자	물 이름 (북부)	물 이름 (남부)
1	으담물/으듭물	일곱물	16	으담물/으듭물	일곱물
2	아홉물/아웁물	으담물/으듭물	17	아홉물	으담물/으듭물
3	열물	아홉물	18	열물	아홉물/아웁물
4	열흔물	열물	19	열흔물	열물
5	열두물	열흔물	20	열두물	열흔물
6	막물	열두물	21	막물	열두물
7	아끈채기	아끈채기	22	아끈채기	아끈채기
8	한채기	한채기	23	한채기	한채기
9	흔물	부날	24	흔물	부날
10	두물	흔물	25	두물	흔물
11	식물/시물	두물	26	식물/시물	두물
12	네물/늑물	식물/시물	27	네물/늑물	식물/시물
13	다섯물	네물/늑물	28	다섯물	네물/늑물
14	으섯물/으섯물	다섯 물	29	으섯물/으섯물	다섯물
15	일곱물	으섯물/으섯물	30	일곱물	으섯물/으섯물

앞의 '날짜/일수에 관한 어휘'와 '물 이름(潮水名)에 관한 어휘'를 보면 제주도에서는 날짜/일수에 관한 어휘가 아주 細分化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數理에 관한 어휘가 세분화되어 어휘가 풍부한 것은 농업과 어업을 主業으로 하며 살아가는 제주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깊은 게 아닌가 한다. 그 점에서 탐라인(제주인)이 왜 머리가 좋은지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¹⁸⁾

탐라인은 수리(數理)에 관한 언어 의식이 뛰어나다. 수(數)에 관한 언어 의식이 강한 점은 숫자 기억력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수학을 잘하는 것은 숫자 기억력이 뛰어나 머리가 좋다는 것과 통할 수 있다. 탐라인은 자연 환경에 도전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연 환경에 도전하려면 수리 의식

18) 최규일(1998), 앞의 논문.

이 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제주방언에 수리에 관한 어휘가 세분화되어 어휘가 풍부한 것은 제주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위에서 살펴본 '시간' 범주에 속하는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의 의미와 쓰임을 정리하면 <표 17>과 같다.

<표 17> '시간' 범주에 속하는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

의미 자질	수량명사·수단위 의존명사		의미·쓰임
	제주방언	표준어	
시간	헤치	띠	십이간지(十二干支)에 따라 그 해에 태어난 사람에 관한 호칭
	므쉬(牛馬)나이	마소(牛馬)나이	므쉬 나이(마소 연령)에 관한 명칭
	돌/월(月)	개월/월(月)	1년을 열둘로 나눈 것의 하나이며, 평균 30일을 하나 치로 세는 데 쓰는 말
	날/일(日)	날/일(日)	날짜나 날수(日數)를 세는 데 쓰는 말
	물이름(潮水名)	물이름(潮水名)	물이름(潮水名)을 헤아리는 데 쓰는 말

6. 기타

「기타」 범주에 속하는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에는 '곡지, 참' 등이 있다.

1) 곡지

'곡지'는 표준어로 '마디'이며, 말이나 노래 곡조의 한 동가리의 수를 세는 데 쓰는 말이다.

- ① 그 황정승 황희의 말 흔 곡지가 중천금(重千金)이라 흔 거 잊어요.
- ② 흔 말 곡지에 나라의 운이 돌아온 거라. 황정승이 그런 사름이여

너 벌써 비금(飛禽) 느는 생이는 지풍우(知風雨)호고 혈자(穴字)는 지우(知雨)다 호는 그 혼 말 꼭지가 무서운 거 아니냐?

①과 같이 ‘명사+수관형사+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로 나타나는 것이 수량사구의 일반적인 형태이나, 제주방언에서는 ②와 같이 ‘수관형사+명사+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로 수량사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① ‘명사+수관형사+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 말 혼 꼭지

② ‘수관형사+명사+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 혼 말 꼭지

2) 참

‘참’은 거리를 나타낼 때 쓰이는 수량 단위이다. 한 참은 약 5리(2km 정도)이다. 제주도 남부에서는 평평한 길인 경우 약 10리(4km 정도)를 한 참으로 본다. 몽골어 ‘jam’(길, 도로)과 관련이 깊다.

◦ 으섯 참이 웨여. 이거 넘을 거 걱정이요?

◦ 두어 참 뉼 디를 그 영감이 걸어오란.

위에서 살펴본 ‘기타’ 범주에 속하는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의 의미와 쓰임을 정리하면 <표 18>과 같다.

<표 18> ‘기타’ 범주에 속하는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

의미 자질	수량명사·수단위 의존명사		의미·쓰임
	제주방언	표준어	
기타	꼭지	마디	말이나 노래 곡조의 한 동가리의 수를 세는 데 쓰는 말
	참	약 5리 (2km 정도)	거리를 나타낼 때 쓰이는 수량 단위

Ⅲ. 결 론

사물의 수량을 헤아리는 어휘들은 우리 민족의 독특한 생활 방식과 함께 오랜 언어 습관을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서구적 사고와 생활양식의 지대한 영향으로 과학화나 산업화·지식 정보화를 추구한다고 해서 그에 필요한 西歐語만을 사용하려 함은 옳지 않다.

특히 제주방언에서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들은 제주도민의 삶과 생활방식이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본질을 잘 究明하고 보존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까지 살펴 본 제주방언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에 관한 연구 결과를 간추려 결론으로 삼는다.

첫째, 제주방언의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는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맛깔스러운 어휘들이다.

둘째, 제주방언의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는 반드시 수관형사 뒤에 따르고, 명사를 수식한다.

셋째, 학교문법에서 數量單位語의 품사 처리 문제와 용어 설정은 數量單位語가 반드시 수관형사 아래에 쓰이어서 사물의 수량을 헤아린다는 문장에서의 직능과 자립성이 있기 때문에 '數量名詞·數單位·依存名詞'로 부르기로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제주방언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들을 그 의미 자질에 따라서 면적, 무게, 분량, 수효, 시간 등의 분포로 大別해서 살펴보았다.

넷째, 제주방언의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들은 의미 자질에 따른 분류가 미흡하여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대 도량형 제정(制定)으로 '미터법'과 '파운드법'을 사용함으로써 제주방언의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들은 점점 소멸되고 있다. 그래서 잊혀져가는 제주방언의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들을

하루 빨리 문헌 조사와 현지 조사를 통해 제주방언의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들의 체계를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 핵심어: 수량명사, 수단위 의존명사, 수량을 헤아리는 어휘들, 의미 자질, 도량형

<참고문헌>

- 강정희(1988), 「제주방언 연구」, 한남대 출판부.
- 고영진(1984), 「제주방언의 인용문 연구」, 연세대 출판부.
- 김공철(1999), 「탐라어 연구; 제주방언의 원류」, 한국문화사.
-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 (1998), “국어 수사의 발달”, 「국어 어휘의 기반과 역사」, 태학사
- 김광희(1993), “수량 변형 범주의 조응성 고찰”, 「국어국문학」110, 국어국문학회.
- 김민수 외(1992), 「국어 대사전」, 금성출판사.
- 김성규(1984), “국어 수사체계의 일고찰”, 「관악어문연구」9,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 김영희(1976), “복수표지 ‘들’의 문법”, 「문법연구」3, 탑출판사.
- (1976), “한국어 수량화 구문의 분석”, 「언어」1-2, 한국언어학회.
- (1981), “부류 셈술말로서의 셈 가름말”, 「배달말」6, 배달말학회.
- (1984), 「한국어 셈술화 구문의 통사론」, 탑출판사.
- 김영돈(1965), 「제주도 민요 연구 上」, 일조각.
- 김종두(2000) 「사는 게 뭇 산디」, 영주문학사.
- 김종택(1992), 「국어 어휘론」, 탑출판사.
- 남기심·고영근(1990),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남영신(1987), 「우리말 분류사전」, 한강문화사.

- 노대규(1977), “한국어 수량사구의 문법[1]”, 『어문론집』(고대) 18. 고려대 출판부
- (1988), 『국어 의미론 연구』, 국학자료원.
- 문순덕(2003), 『제주방언 문법 연구』, 도서출판 세림.
- 박성훈(1985), “單位語 研究”, 『漢文學論集』 第三輯, 단국대 한문학회.
- (1998), 『單位語 辭典』, 민중서림.
- 박용후(1960), 『제주방언 연구』, 동원사.
- (1988), 『제주방언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 박종갑(1996), 『국어 의미론』, 박이정.
- 방학수(1985), 『才物譜에 對한 國語學的 研究』, 단국대 석사논문.
- 서정범(1996), 『우리말의 뿌리』, 고려원.
- 석주명(1947), 『제주도방언집』, 서울신문사.
- (1968), “제주도자료집”, 『제주도총서』, 보진제.
- 송상조(1996), “방언”,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 윤치부(1999), 『제주전래동요사전』, 민속원.
- 이기문(1980), “가과도방언의 특징”, 『연암 현평효박사 회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 이승녕(1956, 1978), 『제주도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탑출판사.
- 이승명(1996), “한국어 수량단위 표시어군에 대한 연구”, 『睡蓮語文論集』 제24집, 신라대.
- 이익섭(1973), “국어 수량사구의 통사기능에 대하여”, 『어학연구』9-1, 서울대 어학연구소.
- 이종은(1995), 『한국어 수분류사의 의미 분석』, 상명여대 석사논문.
- 임지룡(1995), 『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 전병삼(1985), 『國語의 數量單位語에 對한 研究』, 중앙대 석사논문.
- 제주도(1995), 『濟州語 辭典』, 제주대학교 박물관(제주방언 연구회).
- _____(1996), 『제주의 해녀』, 제주도수산과.
- 장현주(1995), 『유아의 수량어 이해에 관한 연구』, 덕성여대 석사논문.

- 진성기(1958), 「제주도 민요」, <제1집>, 희망프린트사.
 _____(1958), 「제주도 민요」, <제2집>, 중앙미술사프린트부.
 _____(1958), 「제주도 민요」, <제3집>, 성문프린트사.
 채 완(1982), “국어수량사구의 통시적 고찰”, 「진단학보」53·54, 진단학회.
 _____(1983), “국어 수사 및 수량사구의 유형적 고찰”, 「어학연구」19-1, 서울대어학연구소.
 _____(1990), “국어 분류사의 기능과 의미”, 「진단학보 70, 진단학회.
 최규일(1998), “제주방언과 창원지역어 어휘 비교연구”, 「방언학과 국어학, 청암 김영태 박사 화갑 기념 논문집」, 태학사.
 최창렬(1985), 「국어 통사론」, 진명문화사.
 _____(1987), 「우리말 어원 연구」, 일지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 「한국방언자료집」9 제주도편.
 현용준·김영돈(1980), 「한국구비문학대계」, 9-1 <북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_____(1981), 「한국구비문학대계」, 9-2 <제주시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_____(1983), 「한국구비문학대계」, 9-3 <서귀포시·남제주군편>, 한국정문화연구원.
 현평효(1985), 「제주도 방언 연구」, <자료편>, 태학사.
 _____(1985), 「제주도 방언 연구」, <논고편>, 二友.

<Abstract>

A Study on the numeral-quantitative nouns and
numeral-unit-dependent ones of Jeju Dialect

Kim, Sung-ryong

So far, the numeral-quantitative nouns and numeral-unit-dependent ones of Jeju dialect have been used because they have been closely related to real life. For this reason, sometimes it is necessary for us to know them in order to survey our old reference books. But the study of the numeral-quantitative nouns and numeral-unit-dependent ones of Jeju dialect have been little don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the numeral-quantitative nouns and numeral-unit-dependent ones of Jeju dialect that are being forgotten in the vocabulary theory field and extend the number of the numeral-quantitative nouns and numeral-unit-dependent ones of Jeju dialect.

To examine the numeral-quantitative nouns and numeral-unit-dependent ones of Jeju dialect, more than 15 old reference books are surveyed and checked on the spot with the help of 5 reporters. And more than 60 theses are used as a basic material. By doing this, numeral-quantitative nouns and numeral-unit-dependent ones are intended to be viewed.

Numeral-quantitative nouns and numeral-unit-dependent ones of Jeju dialect are worked out on their meaning and usage being classified into 'area, weight, quantity, number, time, etc.' category according to their meaning and quality.

Numeral nouns and numeral-unit-dependent ones, numeral-

quantitative adverbs are not classified yet so well according to their meaning and quality.

METER law and POUND one have been used thanks to the enactment of WEIGHTS and MEASURES. So the satisfactory numeral-quantitative nouns and numeral-unit-dependent ones of Jeju dialect are gradually disappearing. It is necessary for us to gather the numeral-quantitative nouns and numeral-unit-dependent ones of Jeju dialect that are being forgotten as soon as possible by means of surveying old reference books and on-the-spot research.

Vocabulary meaning number and quantity of things include long period of linguistic habit with the unique way of life of our nation. Hence, it is not right for us to try to use only Western words which are needed for them because of pursuing scientialization, industrialization, knowledgeablization, and informationalization on account of much effect on Western way of thinking and life.

Most of all, vocabulary expressing number and quantity of Jeju dialect are reflecting well the way of life of people in Jeju island. As a result, it is necessary for us to make an effort to inquire and keep well the essence of numeral-quantitative nouns and numeral-unit-dependent ones system of Jeju dialect.

- Keywords: Numeral-quantitative nouns, Numeral-unit-dependent nouns, Vocabulary meaning number and quantity, Meaning and quality, Weights and Measures